

“美 금리 올려도 韓 충격 작을것”

입력 2015-05-28 03:00 수정 2015-05-28 03:00

‘환율전쟁 대응책’ 버냉키와의 대화

“한국 경제 이미 고도화된 단계... 수출 제조업만으론 성장 한계
내수 키워 환리스크 대비해야”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공동 주최로 '2015 동아시아국제금융포럼'이 열렸다. 특별 연사로 참석한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왼쪽)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과 대담에서 “수출 제조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구조를 다각화해야 한국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희성 기자 yohan@donga.com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해도 경제가 고도화된 한국이 받을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다. 오히려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올해 말로 예상되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이 주요국의 양적완화(QE) 등 통화완화책 경쟁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시스템을 재구성(restructuring)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동아시아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해 “연준의 금리 인상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해졌다는 뜻이므로 좋은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와 종합편성TV 채널A가 주최한 이번 포럼의 전반은 '버냉키와의 대화(A conversation with Ben S. Bernanke)'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버냉키 전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0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경주에 온 이후 처음이다.